

2021년 2월 2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견고한 경기 회복 기대로 상승 확대 미 의회 예산처, '경기 회복 예상보다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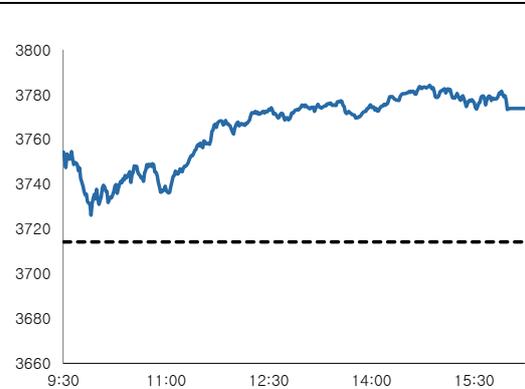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미 의회 예산처 경제전망 보고서, 경기 부양책 논란

미 증시는 중국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과 투기적 거래 완화 등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으나 추가 부양책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매물 소화 과정이 이어짐. 그러나 미 의회 예산처가 미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2024 년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 할 것이라고 전망하자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상승폭을 확대. 더불어 DRAM 가격 상승에 따른 반도체 업종 급등도 영향(다우 +0.76%, 나스닥 +2.55%, S&P500 +1.61%, 러셀 2000 +2.53%)

미 증시는 의회예산처(CBO)의 경제전망 보고서 발표 이후 상승폭을 확대. 의회예산처는 예산 예측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2021~31 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크게 줄어들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이를 기반으로 2020 년 중반 시작된 경제 확장 지속 예상. 실질 GDP 는 올해 중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 3.7%를 기록하고 향후 5 년 평균 2.6%의 성장률을 전망. 실업률은 올해 5.3%, 내년 4.9% 기록 예상. 특히 인플레이션은 2023 년 이후 2%를 기록하고 연준은 2024 년 이후 금리를 인상 할 것으로 전망. 한편, 의회예산처는 불황이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았고, 회복이 강하기 때문에 추정치를 상향 조정 한다고 발표. 이 소식 이후 미 증시는 본격적으로 상승폭을 확대 했으며, 최근 디지털 세금 이슈 등으로 부진했던 대형 기술주가 상승 주도

바이든 행정부는 추가적으로 1.9 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발표했지만 공화당 초당파 의원들은 9 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시행하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추가적인 대규모 부양책은 문제가 있다며 수정을 요구한 가운데 6 천억 달러의 부양책 발표. 공화당 의원들이 주장한 내용은 1 인당 지급액 1,400 달러를 1,000 달러로 줄이고 지급 자격에 대한 소득 기준을 낮출 것. 연방 실업 급여 지원 및 중소기업 지원 연장, 코로나 백신 관련 1,600 억 달러 포함. 주,지방 정부 지원 등은 제외. 이 중 1 인당 지급액 수정은 바이든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음을 언급 했기 때문에 향후 협상의 여지를 열어 놓아 불확실성이 확대 되지 않음. 이 결과 장 초반 일부 매물 출회 되기도 했으나 영향은 제한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3,056.53	+2.70	홍콩항셱	28,892.86	+2.15
KOSDAQ	956.92	+3.04	영국	6,466.42	+0.92
DOW	30,211.91	+0.76	독일	13,622.02	+1.41
NASDAQ	13,403.40	+2.55	프랑스	5,461.68	+1.16
S&P 500	3,773.86	+1.61	스페인	7,798.20	+0.52
상하이종합	3,505.28	+0.64	그리스	749.73	+0.04
일본	28,091.05	+1.55	이탈리아	21,825.51	+1.1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대형 기술주, 반도체 업종 급등

테슬라(+5.83%)는 불꽃 놀이가 끝나지 않았으며 투자은행인 파이퍼 재프리가 목표주가를 515달러에서 1200달러로 상향 조정한 후 상승 했다. 포드(+2.85%)는 구글과 클라우드 컴퓨팅 및 기술 서비스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으로 상승 했다. 모더나(-9.06%)는 BOA가 높은 밸류에이션을 이유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자 급락했다. 노바백스(+21.44%)는 전일에 이어 코로나 백신 임상 데이터 결과에 힘입어 급등했다. 알파벳(+3.60%)과 아마존(+4.26%)은 실적 발표 앞두고 상승했으며, MS(+3.32%), 애플(+1.62%) 등 여타 대형 기술주도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상승했다.

게임스탑(-30.77%)은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급락했으며 AMC엔터(+0.30%)와 블랙베리(+3.76%) 등은 상승하는 등 공매도 관련 종목들은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은 가격이 화두가 되며 상승 하자 팬 아메리칸 실버(+12.74%)와 쿼터 마이닝(+23.09%) 등 광산 업종이 급등 했다. JP모건(+0.74%), BOA(+1.05%) 등 금융주는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경기 개선 기대 속 상승했다. 스카이웍(+9.77%)은 전일 양호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 상승한 데 이어 배당 확대 소식에 기대 강세를 이어갔다. 마이크론(+2.76%)을 비롯한 텍사스인스트루먼트(+4.09%) 등 반도체 업종은 칩 가격 상승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한 3.91% 상승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99%	대형 가치주 ETF(IVE)	+0.87%
에너지섹터 ETF(OIH)	+1.13%	중형 가치주 ETF(IWS)	+1.49%
소매업체 ETF(XRT)	-5.75%	소형 가치주 ETF(IWN)	+2.28%
금융섹터 ETF(XLF)	+1.31%	대형 성장주 ETF(VUG)	+2.40%
기술섹터 ETF(XLK)	+2.51%	중형 성장주 ETF(IWP)	+1.97%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3.54%	소형 성장주 ETF(IWO)	+2.75%
인터넷업체 ETF(FDN)	+2.73%	배당주 ETF(DVY)	+1.14%
리츠업체 ETF(XLRE)	+2.26%	신흥국 고배당 ETF(DEM)	+1.45%
주택건설업체 ETF(XHB)	+1.56%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1.48%
바이오섹터 ETF(IBB)	+1.28%	미국 국채 ETF(IEF)	+0.12%
헬스케어 ETF(XLV)	+0.38%	하이일드 ETF(JNK)	+0.42%
곡물 ETF(DBA)	+0.37%	물가연동채 ETF(TIP)	-0.22%
반도체 ETF(SMH)	+3.92%	Long/short ETF(BTAL)	+0.10%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98.59	+0.70%	-4.96%	+4.35%
소재	450.01	+1.16%	-3.41%	-1.25%
산업재	723.93	+0.97%	-2.60%	-3.42%
경기소비재	1,343.85	+2.77%	-2.08%	+3.17%
필수소비재	659.37	+0.02%	-2.43%	-5.31%
헬스케어	1,345.17	+0.32%	-2.51%	+1.60%
금융	486.35	+1.12%	-2.78%	-0.83%
IT	2,326.07	+2.51%	-1.42%	+1.52%
커뮤니케이션	222.62	+1.85%	-1.92%	+0.32%
유틸리티	317.53	+0.48%	-2.57%	-0.48%
부동산	234.17	+2.27%	+1.28%	+2.7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상승 출발 후 외국인 수급에 따라 변화

MSCI 한국 지수 ETF 는 4.06% MSCI 신흥 지수 ETF 는 2.70% 상승했다. 이를 반영하면 한국 증시는 1% 내외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17.5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의 하락은 게임스탑 등 일부 투기적 거래 관련 종목의 변동성 확대와 중국 인민은행의 유동성 흡수로 인한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투기적 거래 관련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 확대는 결국 거래수수료가 거의 없는 가운데 낮은 금리, 추가적인 부양책에 따른 유동성 과대 공급 이슈를 불러왔으며,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흡수하자 부담을 준 것으로 판단한다. 여기에 중국 정부가 외국인 자본 유입에 대한 규제, 증권 거래소의 불법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도 지수 하락을 부추겼다. 결국 시장은 유동성 흡수와 규제 강화 우려가 부각되자 매물 출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전일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재 공급하고, 미 의회 예산처가 연준의 금리 인상은 2024 년 이후에나 단행 될 것이라고 발표한 점, 연준위원들이 연준은 통화정책 관련 선부른 목표달성을 선언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점은 글로벌 주식시장의 투자심리를 개선 시켰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한 의회 예산처의 발표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91% 상승 한 점도 한국 증시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여전히 유동성 흡수 여부가 상존하고 있어 인민은행의 발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점은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상승 출발 후 외국인의 행보에 따라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제조업 지표 둔화

1 월 ISM 제조업지수는 전월(60.5)나 예상(60.0)을 하회한 58.7 로 발표되었다. 기준선인 50 을 상회 하고 있어 확장세는 유지하고 있지만 신규주문지수가 67.5 에서 61.1 로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이는 4 개월 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생산지수도 64.7 에서 60.7 로 위축되었다. 다만 고용지수가 51.7 에서 52.6 으로 개선되었다. 한편, ISM 제조업지수는 GDP 성장률과 42%의 상관관계를, 경기 침체가 시작되기 전에는 67%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12 월 미국 건설지출은 전월 대비 1.0% 증가해 예상(mom +0.8%)를 상회했다. 특히 거주용 건설지출이 3.1% 증가해 이를 주도 했다. 다만, 비거주용 건설지출이 전월 대비 1.7% 감소해 기업 설비 투자 둔화 가능성을 높였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2.6% 상승

국제유가는 오클라호마 쿠싱지역 원유 재고가 230 만 배럴 감소하고, 겨울철 연료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상승했다. 특히 미 북동부 지역 폭설에 따른 이동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는 난방 연료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더불어 이날부터 시작되는 OPEC+ 회담에서 사우디의 산유량 감산 기대 및 OPEC 국가들의 감산 이행을 99% 소식 또한 상승세를 이어가게 만든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화는 미 의회 예산국이 미국 경제가 올해 중반이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발표하자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경제 성장과 백신 접종 이슈가 달러화의 강세를 이어가게 만들었고 반면, 유로화가 경제 봉쇄 등으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인 점도 달러화의 강세 요인 중 하나 였다. 위안화는 달러 대비 0.5% 약세를 보였으나 멕시코 페소, 브라질 헤알화, 터키 리라, 남아공 란드화 등 여타 신흥국 환율은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제조업 지표 부진으로 하락 출발 했다. 더불어 미 의회 예산국이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인플레이션율 2% 도달 시기는 2023 년 이후가 될 것이며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 또한 2024 년이나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발표한 점, 연준위원들이 연준은 선부른 목표 달성을 선언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그렇지만 미 증시가 강한 강세를 보이고 있어 장 마감 앞두고 결국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금은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급적인 요인으로 0.7% 상승 했으며 특히 은 가격이 9% 상승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영향으로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81%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3.55	+2.59	+1.48	Dollar Index	91.042	+0.51	+0.72
브렌트유	56.35	+2.38	+1.20	EUR/USD	1.2061	-0.62	-0.64
금	1,863.90	+0.74	+0.26	USD/JPY	104.95	+0.26	+1.16
은	29,418	+9.30	+15.44	GBP/USD	1.3666	-0.31	-0.07
알루미늄	1,969.00	-0.43	-2.14	USD/CHF	0.897	+0.75	+0.96
전기동	7,798.50	-0.73	-2.14	AUD/USD	0.7624	-0.26	-1.15
아연	2,570.50	-0.35	-4.99	USD/CAD	1.2852	+0.59	+0.88
옥수수	549.25	+0.41	+7.38	USD/BRL	5.4454	-0.48	-0.40
밀	651.00	-1.81	+0.39	USD/CNH	6.4753	+0.36	-0.18
대두	1,365.25	-0.35	+1.62	USD/KRW	1116.50	-0.21	+1.44
커피	125.35	+1.95	+1.70	USD/KRW NDF1M	1117.55	-0.07	+1.34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1.074	+0.85	+4.45	스페인	0.093	-0.40	+2.20
한국	1.792	+2.70	+1.50	포르투갈	0.030	-0.60	+1.10
일본	0.059	+0.50	+0.90	그리스	0.665	-1.10	-0.30
독일	-0.516	+0.20	+3.40	이탈리아	0.620	-2.20	-5.7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